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는 등
연일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의 생활·생산패턴이 급변하면서,
국내외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출 및 소비 감소의 여파로 상당한 규모의
수요 침체가 예상되고 있으며,
격리조치, 사업장 폐쇄 등은
노동·서비스 공급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The right medicine for the world economy(3.7일자 Economist) :
교과서적인 경기하락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는 경제적 충격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의 엄중한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2.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급락까지 중첩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금주 들어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주식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새로운 금융위기의 씨앗'이라고 표현하는 등
불안심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 The seeds of next debt crisis,(3.5일자 Financial Times)

우리 주식시장도 글로벌 시장반응과
코로나 전개양상에 따라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코스피가 3.11일에는 전일대비 2.78% 하락하였고
금일에도 장중 1,850선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과거 글로벌 위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2008년 글로벌 위기와 달리
은행발 시장불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해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19.9말 국내은행 BIS 비율 15.4%

따라서,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장상황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자금력과 손실감내 능력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장기적 시계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개양상, 유가동향, 각국의 경기부양조치 등
다양한 변수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에 따라
단기적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 데 이어서,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응방향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①”, “현장^②”, “속도^③”의 3박자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①첫 번째로,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감을 갖지 않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금융권 콜센터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집합교육 자제, 적극적 감염예방 등
자체적인 방역강화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고위험사업장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과 함께
금융권의 추가적인 대응계획을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 대해서도
위탁자로서 관리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의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습니다.

②두 번째로, 현장에 기반하여 지원방안을 이행하겠습니다.

일선 창구 등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 금융위원장 2개 지점 현장점검, 실무자 24개 지점 유선점검

그 동안 많은 지적이 제기되었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인력지원,
심사업무 위탁범위 확대 등
금융권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속한 심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추경을 통해 7천억원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
지원규모가 5천억원 이상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공급재원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 기업은행 특별지원 자금 : 당초 공급계획 1천억원이 3.6일 소진
→ 3.9일부터 공급규모를 즉시 1천억원 추가

현장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모범사례도 파악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심사기준 변경 등을 통해
실제 신용등급보다 금리, 한도를 우대하거나,
여신심사없이 일괄적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조치 등입니다.

이러한 모범사례가
쫄 금융권으로 확산·전파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융당국도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면책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기준을 변경한 경우 등은
금감원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금번 정책금융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후에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⑨세 번째로, 금융지원 방안들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애가 타는데,
자금공급 속도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2.7일부터 3.9일까지
총 4.6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상권,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과 함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와 협의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치료센터 등이 부족한 경우
금융권의 연수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격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지향하되, 최악을 대비하라”

“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 Benjamin Disraeli -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갖고
빈틈없이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금번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